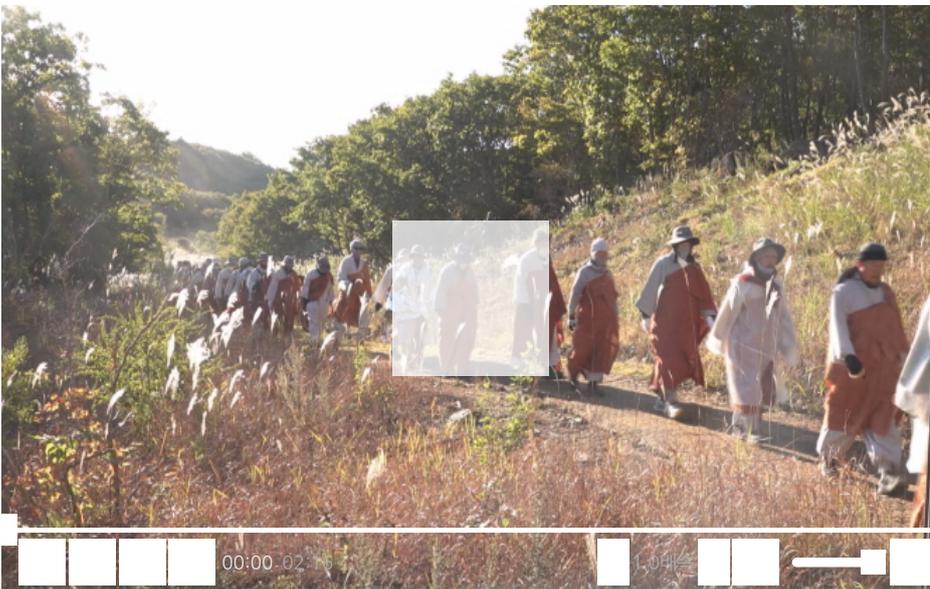


[삼보사찰 천리순례 16]사자평 넘어 오늘 통도사서 회향

부산지사 제봉득 승인 2021.10.18 07:30 댓글 0



[앵커]

오늘 통도사에서 423킬로미터 18일 일정을 회향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우리나라 최대 역사군락지 사자평을 넘었습니다. 해발 천미터 고지로 이번 순례 중 가장 힘든 구간이었지만 불교증흥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산지사 제봉득 기자입니다.

[리포트]

17일 새벽, 해가 뜨기 전부터 순례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질은 어둠이 깔린 도로 위를 손전등 하나로 밝히며 앞서 나가는 순례단.

비가 그치고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한껏 움츠러들지만 회향지로 향하는 순례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표충사에서 통도사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최대 난코스 사자평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9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8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6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5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4일 전체뉴스

인기뉴스

-  관음종 부산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당해
-  진관사 찾은 팬수 "내면 진심 깨달아"
-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  해동용궁사, 조계종 화엄사 말사로 등록
-  운허스님과 당대 고승 자료 한 자리에
-  물라사가 인도불교 복원 수행지도자 양성
-  3D 프린터로 빛어낸 석불..안한식 전시회

사자평은 신라 화랑도가 수련하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사명대사와 승병이 훈련 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발 1000미터 고지 사자평에 가까워질수록 숨이 거칠어지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불교 중흥 의원력으로 씬 없이 나아갑니다.

사자평 위로 청명한 가을하늘이 펼쳐지고 그 아래 금빛으로 빛나는 억새밭이 순례단의 고된 여정을 달래줍니다.

보림스님 / 서울 개운사 주지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기온이 많이 낮아서 몸도 많이 추워졌고, 힘들긴 하지만 여러 대중들이 함께 하니깐 참고 이렇게 오다 보니깐 휴식 같은 시간도 가지게 되고 보람은 나름대로 많이 있죠.)

강산 /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님들의) 걸음걸이가 너무 빠르셔가지고 그걸 따라잡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많이 안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스님들이 건강하시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 수국사 상월청년회 등 300여 사부대중이 순례길에 동참하며 불교중흥의 원력에 힘을 보태의미를 더했습니다.

보림스님 / 서울 개운사 주지

(참 감개가 무량하고 내일 통도사로 해서 삼보사찰 순례가 무사히 다 함께한 대중들이 무사하게 회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자평을 넘어 울산에 진입한 순례단은 오늘 20여 킬로미터를 이동해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430여 킬로미터 18일의 긴 여정을 회향합니다.

BTN 뉴스 제봉득입니다.

부산지사 제봉득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

좋아요 0개

부산지사 제봉득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용화사, 자비로 전하는 사찰음식도시락

분황사는 신라왕경 중심지..유적정비 시급
(삼보사찰 천리순례 14) 호국정신 되새겨
조계종 사노위 “기후위기 해결 방안 마련” 촉구
(삼보사찰 천리순례 10) 지역민들의 배려에 감동



음식사, 자바로 전하는 사찰음식도시

기사 댓글 0개

전체 보기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0/300

✓ 등록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TN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사업안내\(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독자투고](#)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불교텔레비전(주) |
 제호 : BTN불교티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84
 등록일 : 2007년 12월 27일 |
 발행인 : 구본일 |
 편집인 : 남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호성 |
 전화번호 : 02-3270-3385
 BTN불교TV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 02-3270-3385)
 Copyright © 2021 불교텔레비전(주)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